

한올타리

팬데믹 속의 은혜

2020 SUMMER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0 No 3 2020. 8. 24

편집: 홍보위원회

한올타리 편집팀 김한나, 배광현, 이재혁, 정유미, 정은아, 윤경문 목사

권두언

원치 않은 안식?

이영길 목사

요즘 팬데믹 가운데 자주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6: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하 기자는 바벨론 포로의 이유가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기에 70년 원치 않은 안식을 시키신 것이라고 역사적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더 크게 생각하면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안 지킨 것과 같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원치 않은 안식을 시키신 것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까지도 그 작은 숫자로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억지로 행한 안식년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어느 신학자는 유대인을 살린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은 회당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잘 지켰었는지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며 사십시오.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벨론이 아닐까요? 매주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지난 5월 30일 임시 당회에서는 이질병이 만연함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들을 위한 Fund Raising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특별 재난헌금을 드리기로 결정, Task Force를 임명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월 정기 당회에서는 현재 드리는 어린이들을 포함 전 세대가 참여하는 온라인 예배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작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한시간 늦춤 조정을 결정하여 이를 8월 첫 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기다리던 중고등부 교역자에 심동근(BU신학)전도사님을 인준 하였습니다.

1. 비상대책 Task Force 보고

주정부의 Phase 2. Religious Group opening에 즈음, 6월7일 본 교회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최대인원 25명까지 본당예배를 허용 하고 미리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Phase 1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Phase 3 opening에서도 지난 7월 30일 모임에서 아직 위험한 상황이며 교회 환기 문제등을 이유로 모든 지침사항과 현 수준의 예배 참석인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모임은 10명이하의 삼삼오오의 모임은 담당 교역자와 위원장의 지도감독 아래 허락하기로 하였습니다.

2. 특별 재난헌금 Task Force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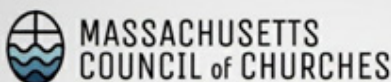
Covid-19 사랑의 겨자씨 헌금

지난 6월 3일 모임에서 결정 당회 인준을 받은 내용은 정식 헌금명칭을 “Covid-19 사랑의 겨자씨 헌금”으로 정하고 헌금은 Pandemic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인 우리 교우, 노회내 어려운 교회, 나바호 선교지, 케냐 교회, 주 내 어려운 교회(One Fund) 등에 쓰여 지기로 하며 헌금 광고는 광고용 동영상 제작(윤경문 목사) 한 주일 광고 후 그 다음 주에 헌금시간을 갖고 그 주일 총 헌금액의 반은 일반재정 반은 사랑의 헌금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6월 14일 주일 헌금을 실시하였고 기대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서 그 헌금은 위에 서술한 곳에 보내져 감사의 편지들이 교회 앞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인하여 위로는 주님께 영광, 받은 이들 에게는 진실한 주안에서의 우리들의 사랑이 전달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e Korean Church of Boston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July 23, 2020

Dear Friends,

Greetings to you in the mist of the unknown. Grace and peac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in this time of high anxiety and fear. We see how hard you are working to adapt to this new reality, and we are grateful. This is the moment to work together. We will find out whether we are indeed One Church, One Body, and One in Jesus Christ that we proclaim.

Your gift of **\$2,000.00 on 07/14/2020** to support the One Church Fund testifies to this unity. We are so grateful for your support and will use your gift to connect churches in the Commonwealth with the resources they need to weather the storm and continue to serve their communities.

Please continue to be in touch and let us know how we can best serve you and the church communities in your networks. We treasure your hard work, your insights, your communication and your partnership on this journey. Thank you. We also treasure your prayers. Please keep us in prayer as we pray for the churches of Massachusetts—that all may be one.

In hope,

Rev. Laura Everett
Executive Director
Massachusetts Council of Churches

The Massachusetts Council of Churches is a 501 (c)(3) nonprofit organization. Your contribution is tax deductible to the extent allowed by law. No goods or services were provided in exchange for your generous financial donation.

BOARD OFFICERS

The Rev. Jennie Bennett Siegal
President

Mr. Thatcher Freeborn
Treasurer

STAFF

The Rev. Laura Everett
Executive Director

The Rev. Megan Manis
Director of Internal Relationships

The Rev. Kenneth Young
Director of External Relationships

The Rev. Carrington Moore
Lydia Fellowes Program Director

MEMBER DENOMINATIONS

African Methodist Episcopal,
New England Conference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New England Conference

The American Baptist Churches
of Massachusetts

Diocese of the Armenian Church
in America (Eastern)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Coptic Orthodox Church, New York
and New England Conference

Episcopal Diocese of Massachusetts

Episcopal Diocese of Western
Massachusetts

Evangelical Covenant Churches,
East Coast Conferenc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New England Synod

Greek Orthodox
Metropolis of Boston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New
England Yearly Meeting

Presbyterian Church, (USA)
Synod of the Northeast

Swedishborgian Church

Salvation Army, Massachusetts
Divisional Headquarters

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

United Church of Christ, Southern
New England Conference

United Methodist Church, New
England Conference

GATEWAY PRESBYTERIAN CHURCH OF BOSTON

GATEWAY PRESBYTERIAN CHURCH OF BOSTON

300 CABOT ST,

BEVERLY, MA 01915

JULY 26TH 2020

KOREAN CHURCH OF BOSTON

PRESBYTERIAN CHURCH 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Dear Rev. Young Ghil Lee,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the love you have showed us all through. we received your donation of the masks which we have distributed to all members and the financial assistance which we highly appreciate. please continue praying for us as we continue praying for you especially at this time of corona virus pandemic. Because of your generosity, we are able to further our mission in helping people stay safe.

Again, many thanks for your support and may God bless you and keep you safe.

Yours faithfully

Rev. Dr. Lawrence P. K. Mbagara

Gateway Presbyterian church of Boston, USA

Gateway Presbyterian Church of Boston
300 Cabot St.
Beverly, MA 01915
Rev. Dr. Lawrence P.K. Mbagara
Minister/Pastoral Counselor
1(978)601-7106

예배예술 위원회 소식

위원장 박신영 장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COVID-19) 상황에서 주일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Reopening plan에 따라 5월 31일부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때 신청자에 한하여 본당에 25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배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커지만, 각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분간 이와같은 형식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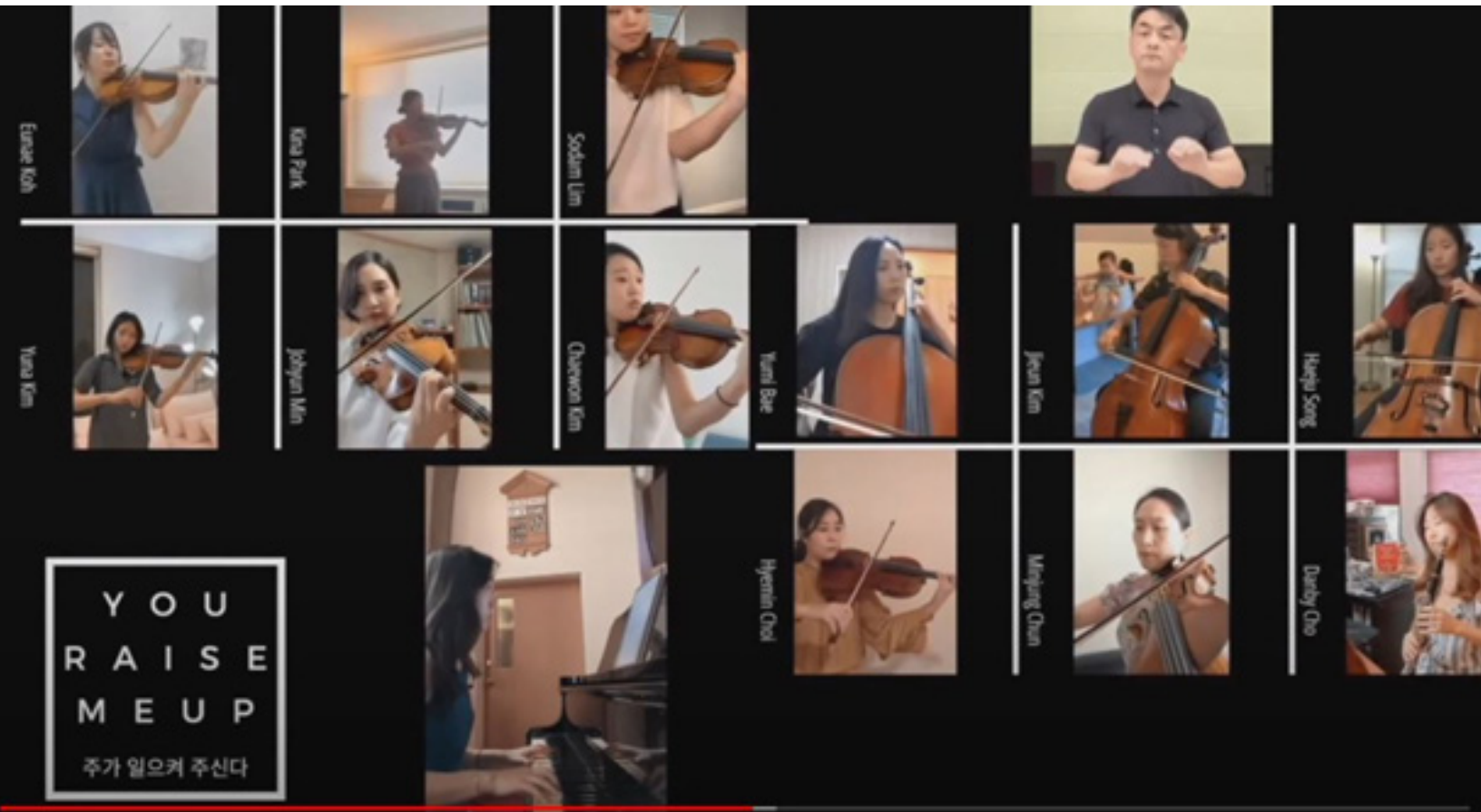
1. 2020년 6월 7일 - 2020년에 졸업하는 분들 (대학- 김소정, 안성민, 안유진, 윤대원; 대학원- 전규남; 고등학교- 안현준, 이예은, 이하은, 이하윤, 정종인)에게 졸업 축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2. 6월 14일 주일예배에는 견신식 (Confirmation; 안현준 (Hyunjun Ahn), 이예은 (Joanne Lee), 이하윤 (Rachel Lee), 이하은 (Heather Lee), 정종인 (Paul Jeong))이 있었습니다. 견신자들과 가족들이 본당에 참석했습니다.



3. 6월 28일 성례주일에 본당에서는 성만찬 (가정에서는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4. 실시간 온라인예배: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온 교우들의 함께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유튜브 사이트에 방송중 접속을 하면, 실시간 혹은 처음으로 돌아가 시청할 수 있고, 실시간 방송이 끝나도 (10시 15분이후) 시청중인 실시간 방송은 끝까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녹화방송은 오전10시 30분부터 어느 때나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유튜브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8월 첫 주부터 온가족이 조금 쉽게 함께 실시간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새 교우들이 쉽게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예배를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했습니다.c. 본당 방송용 프로젝터 (Panasonic PT-EX600)의 램프와 air filter를 교체했습니다.



5. 실시간 온라인예배 준비

- a. 한국어와 영어 설교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본당에 오셔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 b. 찬양팀은 계속해서 주중에 가정에서 녹음을 하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c. 찬양대는 매주 현장에서 수고하는 반주자 김지은 교우와 지휘자/솔로리스트 / 기악연주자들이 현장/찬양 녹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d. 지난 1년간 1부 반주자로 수고한 김지은 교우가 결혼하고 필라델피아로 이주하게 되어 8월 첫 주에 사임을 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찬양대원으로 수고하신 이원걸/전신애 부부 가정과 이지훈/정은아 부부 가정이 타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 e. 주일학교 학생들이 맡은 영어 성경봉독은 동영상으로 참여하고, 유스그룹과 청년부가 맡은 대표기도는 동영상으로 혹은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f. 헌금기도를 맡은 장로들과 한글 성경봉독을 맡은 집사들은 동영상으로 혹은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g. 실시간 온라인예배의 예배 슬라이드 준비작업을 위해 하은혜 집사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 h. 매주일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실시간 예배는 방송팀 (구용한 집사, 김영돈 집사, 이석원 집사)의 지속적인 수고로 잘 진행되며,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되어 교인들이 온라인예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i. 교회 네트워크와 방송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정재원 집사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 j. 주일 실시간 예배를 위해 최학수 집사가 예배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 k. 예배현장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우들은 금요일까지 사무실을 통해 예약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본당 참석인원 25명 이하로 진행되고 있으며, 만일을 위해 친교실에서도 예배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l. 본당은 주일 오전에 내부온도가 높지 않도록 냉방조절을 하고, 예배시에는 창문을 개방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후 주중에는 지속적인 소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경문 목사님과 교회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6. 방송시스템 업그레이드

- a. 온라인 방송중 화면이 끊기는 현상을 방지하고, 보다 높은 화질의 방송을 위해 streaming용 컴퓨터를 교체했습니다 (5/24).
- b. 6월 7일 주일예배부터 영상화면에 자막처리 기능 (DSK)을 이용하여 영상의 중단없이 가사나 성경구절 등의 메시지를 자막처리하여 시청하는 교인들의 집중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 c. 본당 방송용 프로젝터 (Panasonic PT-EX600)의 램프와 air filter를 교체했습니다.



2020년 7월 5일 주일예배 영어설교 중 현장모습

섬김 사역팀

사역팀장 김동규 장로

섬김 사역팀은 집사회, 청년1,2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위원회, 교인위원회, 정의 평화 환경 의위원회 등이 모여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겪는 많은 어려운 일들 중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며 주님이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고자 임시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매주 교회에 모여서 드리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해마다 떠나던 해외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등 많은 교회 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스톤한인교회는 교인들과 이웃의 어려움들 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교인이 함께 참여한 ‘사랑의 겨자씨 헌금’ 모금은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려는 전 교인들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랑의 겨자씨 헌금 모금은 섬김 사역팀만이 아니고 많은 다른 위원회가 함께 준비하고 여러 교인분들과 당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사역으로, 교회 안의 어려운 이웃, 노회내의 다른 어려운 교회들, 케냐 교회, 나바호 선교지 그리고 Mass. Council of Churches를 통한 지역 교회에 지원금을 보내는 뜻 깊은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곳에 넉넉한 지원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주님을 기쁘시게하는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김명희/이재명 집사님 가정에서 손수 수 백개의 얼굴마스크를 제작하셔서 교회와 섬김 사역팀의 이름으로 Haiti 교회 협의회 Dieufort J. Fleurissant 목사님께 전달, 지역 교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였고, Dorchester 지역 학교 등 여러 곳에 전달되었습니다.



교회의 광고로 이미 여러분들이 접하신 꽃소리 Hotline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참여, 특히 청년1, 2부의 많은 수고로 이제 몇 달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COVID-19 사태로 고립된 모든 분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계획,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에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목소리가 되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COVID-19 격리 기간의 연장과 운영의 경제적, 시간적 문제 등이 있어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보스톤 한인 교회의 젊은이들과 참여한 모든 분들의 배려와 봉사의 마음은 사랑의 주님과 교회 안팎의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으리라 믿습니다.

꽃. 소. 리 (FlowerSori) Hotline 안내

(Hotline 전화 번호: 1-888-520-0539)

“꽃잎을 날개 삼아 아름다운 소리가 바람과 전화선을 타고 여러분께 희망과 기쁨을 날라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Covid-19 시기에, 교회 안, 밖에 한인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돕고자 전화로 들으실 수 있는 꽃.소.리.(FlowerSori) hotline 서비스를 4월말부터 제공해왔는데, 8월 31일(월)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서비스로 8월 28일(금)에는 “애청자들의 한마디,” “녹음자들의 한마디,” “운영자의 한마디,” 그리고 마지막 부지형 형제의 Song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꽃소리 사역을 위하여 섬김사역팀(정의평화 환경위원회, 교인 2부 위원회, 집사회)과 교육 2부의 청년 1, 2부가 협력하여 섬겨오셨습니다. 교우님들께 일상의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꽃. 소. 리 (FlowerSori)를 그동안 애청해 주시고, 녹음 화일 보내주시고,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꽃소리 사역을 마치며 보내주신 청취자들의 메시지를 게재합니다.



하하하!
오늘 웃으셨나요?
1-888-520-0539

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소소한 기쁨과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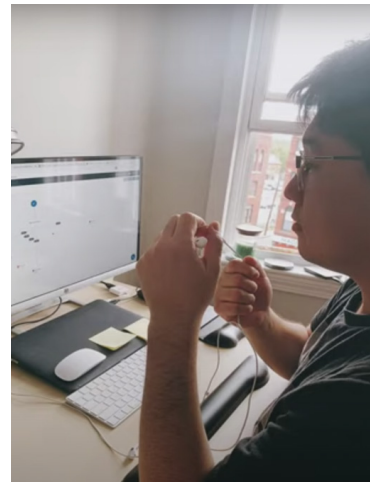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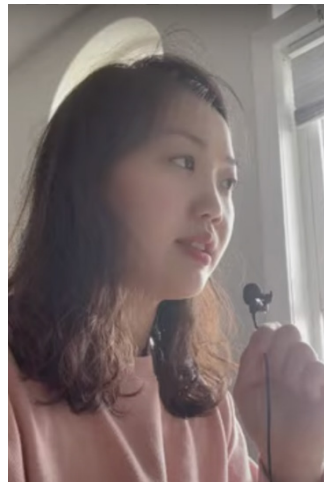


flowersorihotline@gmail.com

“꽃도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모든 청년 형제 자매님들, 간사님들, 참여하신 교우님들,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는 나중에 잊혀지겠지만 꽃소리의 귀한 나눔은 저희 마음에 영원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 들으며 마지막 노래 들으며 눈물이 글썽하고 감사하는 마음 뿐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뜻한 메시지까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봇 이야기

이영길 담임목사님의 동영상 ‘르호봇 이야기’ 시리즈가 매주 수요일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민자들의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자들에 의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민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나누며 오늘 보스턴에서 사는 이민자로서 최선의 삶을 함께 가꾸어 가게 되길 바랍니다.”

Covid-19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르호봇 이야기를 통하여 삶에 새로운 희망을 찾으며,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후기에는 교우님들의 “르호봇의 노래(오은영 사모 작곡, 유경렬 목사 작사)” 찬양/율동/악기 연주 등이 이어집니다.



르호봇 이야기

- 제1편 이삭
- 제2편 모세
- 제3편 아브라함
- 제4편 야곱 I
- 제5편 야곱 II
- 제6편 야곱 III
- 제7편 요셉
- 제8편 여호수아와 갈렙
- 제9편 롯 I
- 제10편 롯 II
- 제11편 라합 I
- 제12편 라합 II
- 제13편 기드온 I
- 제14편 기드온 II
- 제15편 사무엘 I

PCUSA(미국장로교) 제224차 총회 소식

• 원래 6/20-27일에 볼티모어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미국장로교 224차 총회가 COVID-19으로 인하여 Zoom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화상 회의로 열렸습니다.

- . 기간: 2020년 6월 19-20일, 26-27일
- . 전체 총대수: 약 480명
- . 한인 총대수: 16명 (Young Adult Advisory Delegate 포함)

• 예년과 달리 이번 총회가 화상으로 불과 2-3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회의 시간은 하루 반 정도), 총회 준비팀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앞으로 2년간의 정상적인 교단 운영이 불가능한 필수적인 안건들만 다루고 다른 안건들은 다음 225차 총회 (Columbus, OH, 2022년 7월 2-9일)로 연기하는 것을 제안하고 총대들의 승인을 거쳐, 이번 총회에 상정되었던 대부분의 안건들은 225차 총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선출

• 6월 20일(토) 저녁에 열린 총회장 선출에는, 3팀의 총회장 후보자들 가운데, 1차 투표를 통해 Elona Street-Stewart 장로와 Gregory Bentley 목사가 공동 총회장 (Co-Moderators)으로 선출되어서 앞으로 2년간 PCUSA 총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랬던 이문희 장로와 Sandra Hedrick 목사 팀이 총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쉬운 점입니다.

오지현 목사의 부서기 (Associate Stated Clerk) 인준

• 한인 2세 여성인 오지현 목사(Rev, Jihyun Oh)가 이번 총회에서 미국장로교 사무국(Office of General Assembly)의 공식 부서기(Associate State Clerk)로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오지현 목사는 미국장로교 사무국(OGA)에서 중간공의회(대회 및 노회의 사역)를 책임 맡는 Director of Mid Council Ministries로서, 이번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또한 정서기(Stated Clerk)와 함께 associate 로 교단을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아주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지현 목사 약력: MIT(bachelor), Columbia 신학교(M. Div.), 아틀란타 노회 노회장 역임

Rev. Dr. J. Herbert Nelson, II의 정서기 재임 인준

• 지난 2016년 총회(222차, 포틀랜드)에서 정서기로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Rev. Dr. J. Herbert Nelson, II께서 이번 총회에서 재임이 승인되어 앞으로 4년간 미국장로교를 이끄는 정서기 (Stated Clerk) 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와 한국과 관련된 안건들

• 원래 이번 총회에는 NCKPC를 PCUSA의 공식 코커스로 승인을 받는 헌의안을 포함하여 한인교회 및 한국과 관련된 안건들이 모두 4개가 상정되었으나, 총회 준비팀에서 제안한대로 모두 다음 총회 (225차, 2022년 7/2-9일, 콜럼버스, 오하이오)로 넘겨져 2년 후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음 총회로 넘어간 4개 헌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NCKPC의 공식 코커스 인정: On Recognition of the National Caucu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as One of the Racial Ethnic Caucuses
- ② 서부지역에 한미노회 조직: On Creating a Task Force Regarding the Creation of a Korean-Language Presbytery on the West Coast
- ③ 한반도 관련: Regarding a Korea Peace Treaty
- ④ 한인교회의 노회 이전: On Transferring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from the NYC Presbytery to the Long Island Presbytery

중간공의회와 지 교회에 대한 권고 사항

• 미국장로교에 속한 개체 교회, 중간공의회, 총회 및 모든 기관은 그들의 내규에 반인종차별 (antiracism)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곧 규제서 G-3.0106를 수정하여 각 공의회는 모든 회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반인종차별 정책을 추가하는 안건을 225차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하기 전인 지금 부터라도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Per Capita (교인 부담금): \$8.95에서 \$8.98로 인상

• 중간공의회에 관한 행정전권위원회: 총회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2년간 노회 및 대회와 관련된 안건들(조직, 분리, 통합 등)에 대해 총회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전권(Commission)을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함 (G-3.0502e). 이 전권위원회의 구성에 목사와 장로, 그리고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촉구하므로 한인교회 교인들 가운데 전권위원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ganominations.pcusa.org 를 통하여 online application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계시는 분은 총회 최정석 목사, luke.choi@pcusa.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CKPC의 조국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 (한국 전쟁 70주년)

“우리는 조국의 평화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 창조주 하나님,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 백성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한반도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남북 분단과 이산 가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한국 전쟁 70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과 이스라엘 재건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조국을 고쳐주시고 남북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열정적으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재, 협상 및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으나 증오와 투쟁만을 야기하는 허영심, 이기심 및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화해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진정한 평화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파괴된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의 다리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찬 모든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평화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한반도의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정의, 평화, 화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된 통일된 조국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밝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CKPC의 성명서

“정의를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24)

총회장 최병호 목사 드림

우리(NCKPC) 한인교회 성도들은 사회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인 인종 차별이 심화되면서 최근 흑인들의 허무한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인 형제 자매 들과 슬픔을 함께하며 도저히 침묵할 수 없습니다. 유색인종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찰의 잔인한 행동에 의해 억압당할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워싱턴의 정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유색 인종들을 멸시하고 경멸할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과 성경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될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인종차별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미국에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사랑, 화합, 연합 대신에 미움, 투쟁, 분열이 공개적으로 용인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NCKPC의 모든 성도들이 흑인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각 지역에서 유색인종들과 함께 인종차별 운동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 대항하여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을 권고합니다 (엡 6:11).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처형될 때 이 어두운 세상의 폭력과 권력에 담대히 맞서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순교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비싼 값을 치르시고 이루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만연한 불의를 강력히 비난하며,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이 적기에 마태복음 25장 교회의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철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1)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우리 공동체의 거리마다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아모스 5:24).
- 2) 일어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압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상처받은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 복음 10:37).
- 3)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마태 복음 5:44)고 명령하신대로 원수를 포용하고 사랑함으로써 서로 화목하고 우리 모두 일어나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위원회

출판부

[정은아 집사 가정과 송별]

저희와 몇년간 홍보위원회의 출판부원으로 사순절 묵상집, 한올타리 Newsletter 편집/제작 사역을 하며 수많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해 오신 정은아 집사님의 가정이 이번주 중에 보스턴을 떠나신다는 소식에 너무도 섭섭한 마음 금 할길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금쪽같은 인재를 놓치게 되어 더욱 아쉽고 서운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서로 그리워하고만 지냈는데 마지막까지 송별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되어 착잡합니다.

진작에 우리 한올타리 팀에서 송별의 메세지라도 보냈어야 하는데 그 때쯤이면 사정이 좋아져 만날 수 있으리란 기대감으로 미웠던 저의 오산으로 마지막 순간에 인사드립니다.

혼자 계산하기는 '정은아 집사님의 보스턴에서의 신앙생활 등을 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떠나는 준비로 시간이 촉박하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차마 부락을 하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간단히라도 써주시면 고맙겠는데...(염치없는 부탁이지요?)

아무쪼록 긴 여정동안 저희 홍보위원회에서 감초와 같은 역할로 충성을 다해 봉사로 동역해 주심을 감사, 감사드립니다.

텍사스까지 가족과 함께 운전해 가시는 여정이 안전하고 지루하지 않고 기대에 찬 여행이 되길 기도드리며, 그곳에서라도 주일은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김한나 드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한나 장로님 그리고 한올타리 편집부 모든 집사님들께,

이제 보스턴 떠날 날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금쪽같은 이란 장로님의 말씀에 눈물이 샤프룩 고였다가 인재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

저는 정말 인재가 아니었으니까요 ㅋㅋㅋ 제가 한올타리 편집부에 끝까지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한나 장로님께 일처리능력(아,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저의 부족함 관련 설명은 자체 생략하겠습니다~)을 꼭 배우고 싶었고... 또 끝까지 저를 붙잡아주신 한나 장로님의 무한한 애정에 감동을 참 많이 받았기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단체 메일에서 고백을 합니다~

팬데믹 덕분에 전 떠나는 사람 신경쓰게 하는 일을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에 좋기도 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괜스니 신경을 쓰는게 많이지 않아요~

그게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왜걸요... 이렇게 또 장로님께서 메일로 저를 따뜻하게 환송해 주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꽃소리 녹음 원고를 썼는데 혹시 그 원고가 장로님이 부탁하신 원고자격이 있는지 살짝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고 다른 내용을 써달라고 하시면 제가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며 ~ 언젠가 어디선가 꼭 다시 뵙기를 바라보며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은아 드림

이사 준비를 위해 책장 정리를 하다가 같은 제목의 두 권의 책을 발견하고는 한 권은 이사박스에 넣고 한 권은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건내주고 가야지 싶어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품” 이란 책인데요. 책의 일부를 잠시 읽어드릴게요.

시작과 끝이 있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성품 - 감사

‘인생이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보스턴에서의 십 삼년 삶을 마치는 시점에 나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감사’ 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텍사스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 예배를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 교회인 보스턴한인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윤목사님께서 꽃소리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가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셔서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지훈, 정은아 집사이고 온서, 온호, 온희 세 아이와 보스턴한인교회에서 십 삼년 동안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복을 받으며 잘 지내다가 이제 보스턴과 어머니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의 구절에 저희 가족의 상황을 비유해 보려고해요. 보스턴에서의 시간들이 소중한 것은 보스턴에서의 삶에 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이 지루한 시간들, 때로는 망한 것 같아서 서글펐던 순간들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보스턴을 떠나려고 보니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한 그 순간들의 끝이 보스턴 생활의 끝, 텍사스로의 이주가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이 곳에서의 삶의 끝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에 저희 부부는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다음 장을 새롭게 열어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라면 저희 가족은 보스턴에서의 십 삼년 생활의 마지막이 다 좋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셜 디스턴스로 만나는건 위험한 상황임에도 저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받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들 덕분에 저희는 보스턴에서의 끝이 좋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 있지요.

텍사스로 떠나면서 제일 아쉬운건 말도 못하게 소중하고 좋은 만남의 끝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떠나는 날을 이틀 앞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소중하고 좋은 만남도 끝이 있어서 그 만남이 더 좋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로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정말 인생의 끝을 만나기 전에 이 꽃소리 녹음을 들 어주신 보스턴한인교회 교우님들을 어디서든지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며 녹음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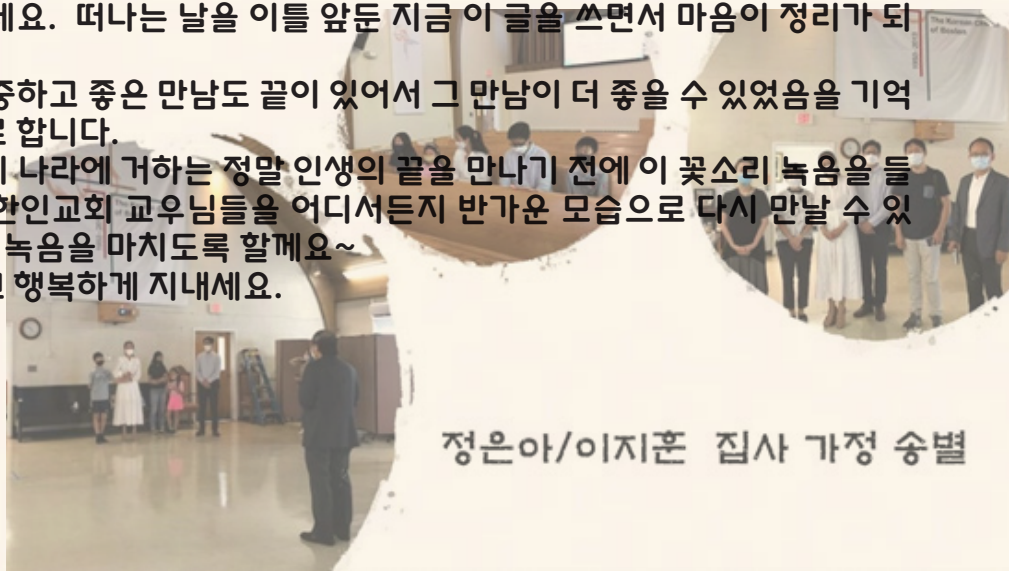


사진 & Multimedia Team

KCB Moments: Drive-in Movies of Summer 2020

교회 사진팀의 수고로 교회 사진첩(KCB Moments) 이 매주 새롭게 몇주간 웹사이트 (사진 앨범-동영상 자료)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Social distancing 가운데 주께서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고 힘을 주시지만, 여러 교우들이 같이 모여 나누었던 정겨운 시간들의 기억은 아쉬움을 더하기도 합니다. KCB 사진부에서는 지난 10여년동안 어머니날, VBS, 전교인 수양회, 성탄절, 야유회, 음악회 등에서 잡힌 교우들의 밝은 모습들과 선교여행, 오아시스카페, 그리고 문화제 등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 주민과 친교해온 사진 기록을 발췌하여 만든 slideshow를 매주 한 편씩 share합니다. 힘든 시기가운데 KCB 공동체 모든 가정과 친구들에게 소망과 사랑이 더해지기를 간구합니다.”

<https://vimeopro.com/kcboston/2020-summer> [컴퓨터, 태블릿]

<https://vimeo.com/showcase/7339263> [모바일 폰]

<https://vimeo.com/437659531> KCB Moments #1

<https://vimeo.com/443914919> KCB Moments #2

<https://vimeo.com/446318702> KCB Moments #3

집사회

회장: 최학수 집사

보고: 전은영 집사

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벌써 2020년 여름의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달력에서는 이미 입추가 지났더라구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늘 하곤 했지만 올해는 정말 언제 여름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여름의 한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의 봄과 초여름이 똑딱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역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에 저희와 동행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저희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사회에서 계획했던 봄과 여름의 주요 행사들은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5월에는 한가족 예술제가, 6월에는 상록회 야유회, 그리고 무엇보다 8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전교회 수양회.

그 모든 행사를 통해서 3세대의 보스톤 한인교회 교우들이 만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 귀한 시간을 갖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 때를 다시 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집사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교회 주변 청소 및 실내외 페인팅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집사회

청소 사역의 날



대면 예배가 제한된 3월 이후에 저희들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던 것처럼 야외 화단에도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는 야외 화단 정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청소 사역하시는 교역자님들의 수고로 인해 친교실과 찬양대실 바닥이 10년 넘은 때를 벗고 반짝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집사회에서는 지저분하게 남아있던 벽과 문, 그리고 계단의 레일들에게도 새 옷을 입혀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흰색, 하늘색, 진한 감색).

코비드-19의 전염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씀드리지 못했는데도 여러분의 제직 및 청년, 그리고 교역자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피치못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는 미안함을 가득 담은 전화와 메세지, 그리고 간식비용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 당일 참석이 어렵다면 미리 나와서 화단청소를 하신 가정도 있었습니다. 정능화 권사님은 매년 맛있는 떡과 동치미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참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한 교회에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때까지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교역자 심동근 전도사



Our youth group was waiting to for a youth pastor for more than a year, and finally God has provided us with an able youth pastor. Sim Donggun JDSN is attending BU Seminary presently.

심동근 전도사는 수원에서 태어나 중학교 3학년부터 캐나다로 처음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Newton South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고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대한민국 공군학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현재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부부청년부

담당 김성천 목사

1. 교회가 3월 22일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함에 따라 부부청년부 모임도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함 (격주 토요일 4시, Zoom Meeting).

2. 행사

- 5월 2일 (토): 베이비 샤워 - 서동현/이정윤 가정
- 5월 9일 (토): 귀국 가정 환송 - 김중용/서영연 (주원, 승원) 가정
- 6월 6일 (토): 베이비 샤워 - 선혁/이성지 가정
- 7월 5일 (주일) 베이비 샤워 - 정지윤/유목은 가정
- 격주로 갖는 온라인 미팅
- 베이비 샤워: 이주원/이은미 (준휘) 가정
- 귀국 가정 환송: 곽동민 집사 귀국

3. 회원 동정

- 선혁/이성지 가정 득녀 (선이음) - 7/4
- 정지윤/유목은 가정 득녀 (정은수, Ella) - 7/9

청년 1부

담당 이요한 목사

1. 신/구 임원단 교체: 6월 28일 주일모임 때, 신/구 임원단 교체식을 가지며, 그동안 수고했던 임원단들 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새로운 임원단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새로운 임원 단에게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2021회기 회장단 - 회장: 안성민, 부회장: 마승은 (임기: 2020년 7월 ~ 2021년 6월)

2. 꽃소리(FlowerSori) 활동 및 “섬김” 프로젝트: COVID-19 상황 속에서, “꽃소리(FlowerSori)” 프로젝트를 청년2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COVID-19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청년1부의 “섬김” 프로젝트도 적절히 변동해가며 교회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3. Tuesdays with Yohan: 모든 전체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면(in-person) 모임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갈급함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MA주의 COVID-19 상황이 호전되는 중이어서, 주정부의 정상화 방침 내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장소(타운홀 벤치 또는 교회 넓은 방)에서 소규모 대면(in-person)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하는 화요일이라는 이름으로 1~2명의 청년들을 초대하여, 이요한 목사와 참석한 가능한 간사님들이 함께 기도와 교제 모임을 화요일 점심시간 또는 오후에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 신입생이 되는 청년들도 보스턴을 떠나기 전에 초대할 예정입니다. 총 참석인원을 2~4명으로 제한하여 모이고 있으며, COVID-19 추이와 새학기 준비를 모두 고려하며 모임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여름 일정들: 7/3(금)과 7/5(주일)의 Independence Weekend에는 온라인 친교모임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에도 1회 온라인 친교모임을 계획하고 있으며, COVID-19 추이에 주목하면서, 보스턴에 남아있는 청년들 중심으로 소규모 야외모임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새학기 준비에 들어가며, 신입생들을 위한 안내 동영상 제작(교육2부 위원회 함께)과 웹페이지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임 형식과 스케줄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COVID-19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하는 상황이고, 유학생들의 입국 여건 등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2부

담당 윤경문 목사, 김수영 목사

1) 신. 구 임원 교체식: 6월 28일 신, 구 회장단 교체식을 가지고, 수고한 전 회장단에게 청년부원들의 메시지를 담은 감사의 카드를 만들어 전달함.

6월까지 회장단(회장: 김호인, 부회장: 이준석, 총무: 김주은)이 섬겨주었고,
7월부터 새 회장단- 회장 정윤원, 부회장: 임주광, 총무: 문주형-이 섬기게 되었음.

2) 총무 김주은 자매 환송식: 펜실베이니아로 떠나는 주은 자매의 환송을 위해 교회 앞에서 적은 수의 청년들이 모여 환송식을 해주었음.

3) 줌 Tea Time with Pastors 시작: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Pastoral care 및 교제를 위해서 줌으로 목사님들과 청년들이 Tea Time을 가지며 담소를 나누신 시간을 갖기로 하고 시행함 (매주 목요일 오후 8:30분)

4) 온라인 금요 예배 및 주일 모임

- 금요 예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0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을 가짐.
- 주일 모임: 주일 오전 10:30에 모여서 교제를 나눈 후 2조로 성경 공부 모임(마태복음)을 가지고 있음.
- 리더 성경공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리더들과 윤경문 목사님이 성경공부 준비 모임을 가짐.
- 찬양팀: 최효영 자매, 이준석 형제와 김수영 목사님이 찬양을 준비해 주고 있음

5) 섬김 사역: “꽃소리” FlowerSori Hotline service

- 꽃소리 사역을 위하여 청년 2부가 청년 1부들과 함께 열심히 섬겨주고 있음.
- 꽃소리에 올리는 내용을 여러 청년들이 (양원제, 최효영, 김호인, 정윤원, 김주은, 이주영, 임주광) 손수 준비하여 열심히 올려주고 있음.
- 6월말 리뷰 모임을 갖고, 콘텐츠를 월, 금- 2번 업데이트 하기로 함.

6) 교우 동정

- 1) 이주영 자매(리더)- 비자 관계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비자를 잘 받았고, 하버드에서 Post-Doc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에서 지내기로 함.
9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가질 예정.

7) 7/8월 계획

- 1) 새로 오는 청년들을 위한 홍보 영상을 청년 1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음.
- 2) 임원진/리더진- Workshop 예정 (8월)
- 3) 여름 기간 outdoor activity로 바닷가를 가거나 봉사 사역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COVID-19환란중에 은혜

감찰하시는 하나님

먼저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저와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사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신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 이 온세계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 글을 쓰게 하심은 이런 시간들 너머에도 주님의 역사와 돌보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사를 체험했다고도 하지만 때때로 내 안에 내자신이 살아있어 주님이 원하시는대로 다 살지 못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제가 있는 가정과 사업에 늘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이 나의 속한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미국생활 30년 이 되어도 늘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며 늘 쫓기는 생활속에 빠듯한 아침과 피곤한 저녁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여유로운 아침 커피 한잔 만들어보지 않던 저를 여느 미국인들의 생활처럼 아내를 위해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주고, 아내가 만든 빵으로 함께 아침으로 먹고,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남자라는 이름으로 야드에 나가 세월의 흔적으로 이리저리 쓰러진 나무들을 잘라 태워버리고 작은 캠프 화이어도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우리는 작은 가게를 달아야했고, 2달이라는 정지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여유로움은 어디가고 가게를 못 여는 기간 동안에도 렌트비를 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가족 모두를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겪는 시간의 어려움 일테니 그건 우리뿐 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끈은 주님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마리아 기도모임을 통해 기도제목을 나누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말경에 돌아오는 렌트비를 상의하기 위해 관리 사무실을 가서 사정 얘기를 하니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후 4월, 5월은 렌트비를 탕감해 줄터이니... 전화를 끊고 나가서 마음껏 기뻐하고 6월 부터는 렌트비를 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때 부터가 시작된 참된 휴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님한테 죄송한 생각도 들지만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가 내입에서 끊이지 않았습다.

아내는 옆에서 “이럴 때만 감사해?” 하지만 제가 살면서 표현이 서투른 사람이라 아마도 충분한 감사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레이는 가슴으로 가게 오픈하는 날을 기다려 5월25일이 되어 오픈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코비드19의 위험때문에 손님은 가게를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에게 커브싸이드 픽업을 요청 해야했고 그런 불편한 샵핑 방법은 매상을 너무 많이 내려 앉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렌트비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대로 라면 우리는 렌트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본 자녀들이 함께 나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관리 사무실을 아가서 우리 부모가 겪는 지금의 어려움을 사정하니 지금의 사정이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때이니 이해한다며 어떻게 하여주기를 원하냐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하는 사정이 우리가 렌트비 올리기 전 상태로 12월 말까지 내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일단 다른 관계자와 상의해야 하지만 6월부터 인하된 금액으로 렌트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야니 하실지라도 감사해요’를 외치며 감사하였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제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업을 한다고는 해도 늘 여유롭지 못하게 사는 엄마 아빠를 보며 자녀들도 일찍 경제적인 전선에 파고 들었지만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가 차고 넘쳐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늘 필요한 것만큼만 보충해주시는 분 인걸 이번 코비드-19 동안에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도 늘 감사하고 겸손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글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청년부 성경공부반

(인도자: 한문수 장로/부인도자: 전은영 집사)

‘함께’ 팬데믹을 이겨내요!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청 소속 남기환/송이라 가정입니다.

미국에 온 지 1년이 채 안돼 이제 겨우 성도님들 얼굴을 익혀갈 때쯤 예고 없이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자 부부청년부 성경공부반 신참으로 합류 후 실제 모임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저 시간의 힘을 빌어 서먹함과 어색함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던 때였죠.

야속하게도 팬데믹과 동시에 교회의 문이 닫혔고 다행히 성공반은 윤병준 집사님의 제안으로 줌미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떼기조차 어색한 대선배님들이 즐비한, 차가운 온라인 공간이 부담스러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흘렀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 잠깐의 어색함을 눌러내고 다함께 모여 성경공부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각자의 화면 속이지만, 어려움 시기에 함께 탄식하고 위로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모임은 더 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인생 선배이자 믿음의 대선배님들과의 교제는 부청에서의 그것과는 또 다른 배움과 올림이 가득합니다.

요즘처럼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히 10:19-25)는 말이 와 닿을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써 모일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공부반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코로나블루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신가요? 오늘 바로 성(경)공(부)반 문을 두드려주세요!))

작성자: 송이라 교우



♡팬데믹 기간동안 저희에게 있어서 성(경)공(부)반은 마치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 창을 통해 사람사는 모습이 보이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고, 갇혀있는 일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윤병준.김정연.하성.하임

♡팬데믹 동안 성.공.반은 저희에게는...

첫째, 작은 파티. 매주 줌을 통한 만남속엔 기쁨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그저 이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서 오는 잔잔한 기쁨. 그리고 얼마전 가졌던 저희 딸의 베이비 샤워는 살짝 눈물나게 고마운 파티였습니다.

둘째, 여유로운 공간. 교회 건물을 쓸 수 없기에 물리적 공간은 없어도 성공반은 각 멤버들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줍니다. 속 말 할 수 있는 자리, 함께 듣고 나누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앞으로 얼마큼 더 길어질 팬데믹 일지 모르나 성공은 저희에게 멤버들과 함께 길을 걷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구하며 삶과 생명을 나누는...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임입니다.

-최정환. 한세진. 지아

♡팬데믹 기간동안 저희에게 있어서 성(경)공(부)반은 마치 “Driver Shot”과도 같습니다.

인생과 비슷하다는 골프의 각 홀을 드라이버 샷으로 시작하지요. 단 한 번도 똑같은 샷이 안 나오듯이 성공반의 매주 모임은 항상 놀랍고 예기치 못한 축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성공반은 에너지 넘치는 좋은 써프라이즈 속에서 한주일을 시작하는 멋진 드라이버 샷을 치는 것과 같은 모임입니다. 때론 잘 안맞은 샷에 속상하듯 보스턴을 떠나가시는 분들을 보며 섭섭하기도 하고, ‘오잘공’(오늘 가장 잘맞은 공) 이 나오듯 함께 나누고 의지하며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방학도 없는 매주 기쁨의 모임입니다. 멋진 드라이버 샷을 쳐서 골프를 잘 치듯이 성공반은 한주일을 맞이하는 삶의 원동력(driver)으로 저희 인생을 이끌어가는 멋진 샷입니다.

-한문수. 윤선미

♡팬데믹 기간동안 저에게 성경공부반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던 CDC 사이트에 매일 들어가고 통계 데이터와 뉴스를 검색하고 마스크와 필요한 용품 등을 체크하고 주문하는 일상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어 지나가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공부반과 함께 하는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성.공.반 식구들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은 팬데믹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던 저를 믿음의 확신속에 살아가게 하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은영

♡팬데믹 기간동안 저희에게 있어서 성공반은 ‘김밥’과도 같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난생 처음 제대로 된 살림을 시작한 저에게 김밥은 최고 난이도의 요리였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자 최고의 영양식인걸 알지만, 막상 만들려고 하면 손이 많이 가는 준비과정이 귀찮아 꺼내 봤던 단무지를 슬그머니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기도 했죠.

제겐 성공반이 어찌보면 김밥 만들기와 비슷합니다. 하기 전에는 조금은 귀찮고 어색함에 주저하지만, 막상 성경공부를 끝내고 나면 세상 뿌듯하고 감사하며 든든합니다.

각자 처한 위치와 상황은 김밥의 재료만큼이나 다양하지만 단단히 모아 놓으면 맛있는 김밥이 되듯 저희 모두도 주안에서 더 단단해지길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김밥을 말려 갑니다. ㅋ

-남기환, 송이라, 다인, 수현

♡저에게 성.공.반은 (황정민)입니다.

우리 성공반은 매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과를 인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갈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겨우 말씀과 제목만 읽고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열기” 문제만 던져도 성.공.반 식구들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지기 때문이죠. 마치 잘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고 맛있게 밥만 먹으면 되는 것처럼. 저희 부부 성공반의 “zoom” 은 one-click away에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숟가락 하나 들고 오셔도 될 만큼 풍성한 말씀의 밥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정옥, 최윤희, 인후, 하은

♡팬데믹 기간동안 ‘성(경)공(부)반은 저희에게 (배터리) 인 것 같습니다.

6살 먹은 저희 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와서 ‘충전’을 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충전’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난다며 “너무 좋다~” 라고 속삭입니다. 엄마 품에서 뚝 떨어진 저는 매 주일 아침, 줌에서 성.공.반 식구들을 만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한 이 시간에 흔들렸던 저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한주를 살 힘을 얻어갑니다. 성.공.반 식구들이 없는 팬데믹 기간은 이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배광현, 정유미, 이슬

감사의 이유



2020년 3월15일,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치과를 닫으라고 권고하는 이메일이 메사추세츠 치과협회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치과를 비롯한 메사추세츠 대부분의 치과들이 3월 17일부터 결과적으로는 5월 말까지 Voluntary closure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함께 제 치과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도 자연스럽게 갑작스레 실직자가 되었지요. 몸은 쉬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일할 때보다 더 바쁜 두 달 반을 보내야 했습니다. 응급환자들의 전화는 매일 매일 오지만 제때에 치료해 주지 못하고, 사업이라는 것이 다 그렇겠지만 문을 닫는다고 유지비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정부에서 주는 도움을 받아보고자 항상 예민하게 정부의 대책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치과의 직원들에게는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부족한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봐야 하고... 그야말로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두 달 반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집이 학교가 되고 아이들 엄마가 선생님이 되며, 온라인 학습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 엄마가 대부분 신경쓰며 직접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이들도 고맙게도 다들 열심히 해주어 다행히 학기를 무사히 잘 마쳤지만, 다음 학년에 대한 준비가 아무래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저희들 모두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지난 다섯 달을 되돌아보며 드는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첫번째 감사한 것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짧지만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시편 한 편 그리고 잠언 한 장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짧은 시간이 저의 하루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두번째 감사한 것은, 제 주위의 신앙인들과 함께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 가장 값진 것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당연히 매일매일 기도로 저를 항상 도와주는 귀한 신앙의 동역자이자 중보자이지만, 이번 기회로 제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것도 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커다란 감사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 인도해주시는 성경공부를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안의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는 아닐지라도 Zoom을 통해, 함께 말씀을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한인 치과 의사들과의 교류와 도움들, 그리고 김성진 교수님과 함께 한 BNI 강좌를 통해 받은 많은 은혜 - 특히 옴의 고난을 보며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이렇게 이 귀한 신앙인들 사이에 저를 두셔서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고 이겨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로 부터도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직접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세번째 감사한 것은, 이 사태를 이겨나가고자 하는 저의 몸부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입장에서라도 그래도 많이 안정되어가고 있으며, 오늘까지도 저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저희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앞으로도 계속 한결같이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저와 저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보스톤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성자: 손영권 집사

화상으로 만나는 세상

지난 5개월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 부분 많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힘들어했고, 수많은 실직자가 생겼고, 출퇴근 이동 시간이 필요 없는 재택 근무에 언택트 소비의 증가,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딥택트 현상과 마스크의 착용...

그래도 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의 제일 큰 변화는 교육 부분일듯 싶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COVID - 19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가 전세계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수의 87%, 165개국의 15억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다. 학생들과 부모님, 학교와 교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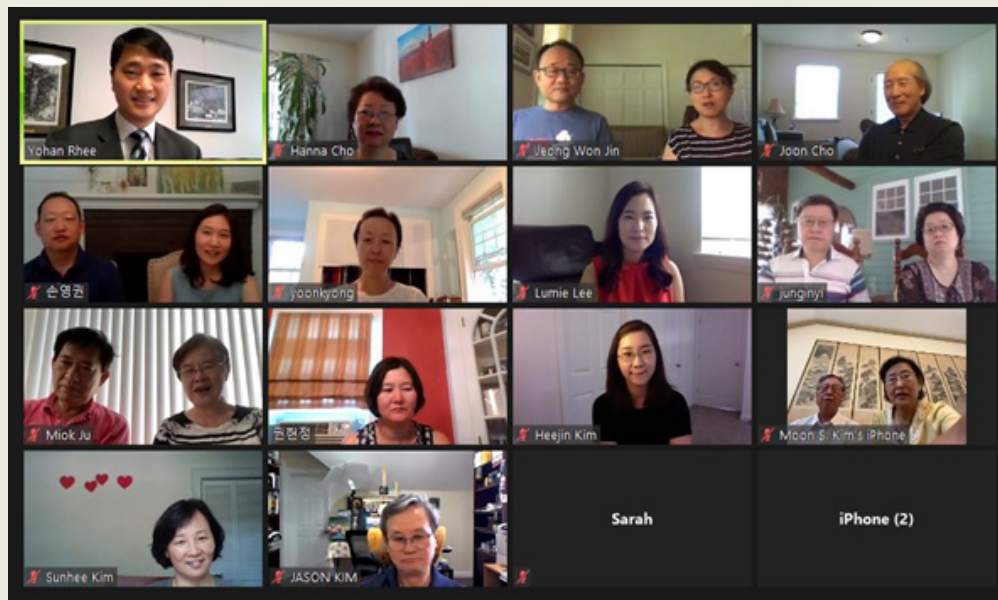
내가 살고 있는 타운은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컴퓨터 화상으로 매일 만나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안타깝게도 타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들이 실직을 한 상황에서 매일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시는 의료진 선생님들 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이분들도 내게는 멋진 First Responder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타운에서 노트북과 인터넷 커넥션이 제공되었지만, 바쁘신 부모님들의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그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보며, 주말에 학교에서 가정으로 먹거리를 가져가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은 없지만 학교로 와서 음식을 픽업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내 눈에 비춰진 우리 타운의 모습이 일부분이었음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음을, 무엇보다 빈부 간의 격차가 심각해짐을 느껴 보게 되었다.

집안에서 유럽의 박물관을 방문할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도 볼 수 있었고, 유명한 음악가의 공연도 접하며 양질의 교육의 대중화 또한 경험하였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대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역예배, 소그룹성경공부, 기도모임, 각 부서의 모임으로 인해 주일학교에서부터 상록회 어르신들까지 함께 소통할 수 있음에, 그리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시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하다.

위기에 도 법칙이 있고, 위기가 있어야 기회가 온다고 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누군가는 위기에 무너진다고 한다. 지금이 확실히 위기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시대의 최고의 위기이다. 힘들고 답답한 이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전과 다른 세상,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이겠지만, 그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쓰임 받으며,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껏 살아갈 힘주시고 매일매일 고고 씩씩 하며 주님께 한 발자욱 가까이 가게되는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작성자: 진정원 집사

Infant처럼 코로나 이겨내기



Framingham에서 살고 있는 새힘이네입니다. Pandemic이 시작됐을 때 새힘이가 5개월이었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나 새힘이는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뒤집기도 못하던 젓먹이 아이가 어느덧 아장아장 걸음마도 배우고 있고 이유식도 먹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새힘이는 인생의 절반을 Pandemic으로 지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 이 짠해집니다.

그래도 저희 가정은 새힘이 덕분에 Pandemic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관련 뉴스와 최악의 경제 상황, 그리고 한국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 피해 소식 등, 온 세상이 고통받고 멈춰있는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많은 것을 배우며 자라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부모인 저희도 밝은 에너지와 희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것들이 아닌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엄마의 장난스러운 표정에 가르르 웃고 아빠의 동요 노랫소리 들으며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에 그동안 물질적인 것, 양적인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는 저의 모습을 돌

아봤습니다. 상한가의 주식도, 강남의 아파트도, 그리고 어쩌면 건강도 줄 수 없는 기쁨을 10개월 아이의 용알이와 밝은 웃음이 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주식도, 강남의 아파트도 없어서 잘은 모릅니다 ^^)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저희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비극적이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는 10개월 아이의 모습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다면... 코로나 Pandemic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Pandemic을 이겨나갈 수 있길 소망해봅니다. 모두 새 힘 내세요!

작성자: 김은지, 박민제, 박새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병원이 코로나 환자 병원으로 지정된지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다. 처음 환자를 받기 시작할 때는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모두 초긴장상태였다. PPE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처럼 N95 마스크가 아닌 surgical mask를 사용하게 하였던 것도 그 이유중에 하나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가물가물 기억이 잘나지 않지만 나의 손길을 거쳐간 코로나 환자들이 족히 50여명은 되지 않을까 싶다.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건강히 회복되어서 집으로 퇴원했지만 그 중 몇 분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다.

기억에 남는 몇 명의 환자들 중에 Nursing home에서 오신 3분의 신부님이 있었다. 이 분들은 은퇴하신 신부님들이 주로 계시는 Nursing home에서 오셨는데 한 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다. 어떻게 아셨는지 다른 두 분의 신부님께서 그 분께 돌아가면서 전화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본인들도 오랜 병원 생활에 심신이 많이 힘들었을텐데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다행히 3분 모두 건강히 다시 Nursing home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

코로나 환자를 보기 시작했을 무렵, 처음으로 병원 shower를 썼던 게 기억이난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전 혹시나 몸 어딘가에 바이러스가 묻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조금은 강박감으로 몸을 씻었던 것 같다. 어떤 의사는 퇴근 후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며 다른 가족들과 격리하며 지낸다는 이야기를 사뭇 진지하게 했다.

처음 코로나 환자를 받은 지 4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가 많이 줄었고 환자를 볼 때도 특별히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가장 힘든 시간은 이제 끝난 것 같은 생각이 잠시 들기도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 지금도 미국 여러 지역에서 환자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고 겨울이 다가오면 더 많은 환자들로 second surge 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잠시 주춤했던 두려움이 나의 안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요동치려 한다. 하지만 두려움을 붙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마음을 추스려 본다. 짧은 글을 마치며 이사야서 41장 10 절 말씀을 묵상해본다.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작성자: 채진병 집사



펜데믹의 나날들

아직도 진행중인 펜데믹의 시간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나날들입니다
지난 1월 큰딸아이의 둘째아들 산후 조리하러 한국에 가니 그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밖
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던중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입국금지 시키거나 입국시 2
주간을 강제 격리시키는 일이 생길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잘못하는 엄마가 혼자 껴
어야 할 일들을 걱정하는 둘째딸과 남편의 의견에 따라 부랴부랴 2월말에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전
쟁터에 자식을 두고 혼자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같은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
지요.

그러나 조금 지나니 한국은 점차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으나 반대로 미국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도 모르고 감염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심각하게 걱정되
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지요

드디어 갑자기(?) 3월 4째주부터 Essential이외에는 모든 것을 중단시키는 주지사의 발표로 하루
아침에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리테일 스토어를 하는 저희에게는 생활비, 가게 렌트비, 모
게지 등등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 외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요. 정부의 여러가지 긴급 지원
책과 론이 생겼으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우왕좌왕 할 때에 교회에서 TFT(Task Force Team)
를 구성하여 여러 장로님들이 나서서 Zoom Meeting을 주선하고 정보교환을 하게하여 한시름 놓
을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생애에 처음으로 갖는 2개월의 강제 휴식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5월 마지막 주 부터 Curbside Pick
up으로 가게를 Open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의 도움으로 가게 출입문2개를 아크릴
로 막고 한 곳은 주문받아 이쪽저쪽에서 물건을 찾아서 다른 문에서 pick up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
사하게 되었지요. 2달간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지 못했던 손님들의 감사의 인사도 받으며 갑자기
몰려오는 손님들의 물결에 힘든 것도 잊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고 불편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요.
무엇 보다도 감사한 것은 확진자가 많은 동네에 있는 가게라 직원들의 복귀를 걱정했지만 부담을 안
고도 일터로 돌아와준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미국전역에 걸쳐 일어났던
시위와 연이은 폭력, 약탈, 방화등이 겹쳐 언제 우리 가게도 그들의 대상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가게 전면을 BOARD UP하고 지내게 된 것이지요

지금은 마스크, FACE 실드와 장갑을 끼고 바이러스의 공포와 더불어 손님들을 받고 있습니다 환기
를 위해 자주 문을 열어 더위로부터 견뎌야 하며, 바이러스는 무서워도 손님들과 가까이 대화하고
터치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공포에서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많은 새로운 일들을 겪게 했습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발생
한 바이러스와 싸우며 힘겨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언제 보일런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
던 사소한 것들까지도 참으로 소중한게 느껴집니다.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지금 저희가 Helpless 한 그 모습임을 주님께 고
백하게 하시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주님 저희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이끌어주신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믿고 나아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15). 아멘

놓치고 싶지 않은 시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Helpless!

굳어가는 나를 치료해주세요 주님!
부서지는 나를 붙잡아주세요 주님!

새벽녘 눈을 뜨면
견딜 수 있는 만큼 숨을 쉬어봅니다.

따뜻한 물에 통증을 녹이고
새 살처럼 생기가 돌아나길 기도합니다.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는 아들처럼
허기질 때마다 영육의 양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기쁠 때 맨발로 뛰어가는 딸처럼
말씀속으로 달려가 사랑의 온기를 충분히 채웁니다.

온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길 기다리시기 때문에
멈춘 시간에 감사의 눈물이 차오릅니다.

약속에 대해 잊고 있던 심장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마스크 안으로 들숨 날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부드러운 숨결이 닿아 두근두근 가슴이 뛰니다.

작성자: 김희진 사모

어느 아침의 QT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9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saiah 55: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약없이 이어지는 크로노스 같은 시간 속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들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다독이며 함께 갈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콜링을 주시고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도 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저 현재 나에게 닥친 상황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고 불평만 하는 작은 존재임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파도가 거세고 풍량이 거칠 수록 움직이지 않는 뿔대 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아버지의 뜻과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신자된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교역자님들 비롯한 모두 우리 보스톤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작성자: 최학수 집사

두려움 속에서 감사

코로나 19!

이것은 무엇이지?

이 현대 시절에 왜 전염병? 이걸 사극에서나 나오는 극빈 지역에서 나도는 질병아닌감?

하지만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것 만은 아니었다. 먼 지방(Seattle, WA)에서 시작한 질병이 점점 우리 지역에도 다가오는 불안한 전염병이 되어 우리 생활을 목 조여왔다.

드디어 3월 10일(2020) State of Emergency가 선포되고...

다음날 출근시 병원의 모든 복도 문들은 모두 닫히고 큰 싸인이 붙었다. "NO VISITORS or VENDERS ALLOWED!" 그리고 매일 staff들 출근시 열 재고 CDC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과 사인하기, 마스크 쓰기, 보호용 장갑 착용하기... 많은 직장에 재택근무 체제로 바뀌고, 손님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업체들은 임시 휴업, 그리고 고용인 실직...

그러한 상황에도 나는 essential worker라는 직업으로 날마다 직장을 나가야만 했다.

날마다의 직장일은 긴장과 불안과 초조감의 연속, 아직은 코로나-19가 발병한 환자가 없다 하나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한주가 지나 per diem으로 임시직 근무하는 간호사가 코로나 판정을 받고(아마도 다른 병원에서 일하며 전염되었으나 본인도 모른 채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근무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 그 간호사가 돌본 환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3명이 감염 양성 판정받고 부지런히 병동의 일부를 폐쇄하여 양성 환자들 만을 위한 COVID UNIT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쪽 병동에 들어갈 경우 N95 mask를 쓰고, 또 한 겹의 surgical mask/shield mask 착용, protective gloves 착용, 지정된 담당 간호사는 그 병동에서만 하루 종일 환자 돌보기(점심도 그 안에서 해결).

조지아에서 장기출장 근무하던 남편도 재택 근무하라는 방침에 의해 하루만에 18시간을 운전하고 1100여 마일을 달려 귀가했어야만 했다. 나에게서는 반가움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생활의 시작이었다. 멀리 있는 남편의 건강을 조마조마 걱정하지 않고 옆에서 돌볼 수 있어 다행이었고, 병균과 싸우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나에게서 뭐라도 옳을까 초조해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생활. 혹시나 격리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어있는 방을 다시 치우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물론 남편은 왜 일로 부지런 피우며 방 정리한다고 좋아했지만 ...

얼마 전에는 병원에 동양인 남자 환자가 다른 큰 병원에서 옮겨져 왔다. 나이는 60대 말. 그전에 무슨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나 COVID-19에 걸려 호흡곤란으로 보스턴의 큰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2달만에 우리 병원으로 옮겨져 왔다. 그분은 그야말로 의식만 있는 식물인간 정도의 상태였다. 아내는 날마다 병원 방문 (그때쯤엔 코비드가 많이 콘트를 되어 방문이 가능했고, 로비에서 체열 등을 하고, CDC 서류작성한 후 방문자 스티커를 받아야만 했다)을 하며 돌보았고, 자녀들도 날마다 교대로 방문하여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미국인 환자들은 가족 방문하는 분들이 아주 적다. 웬일로 많이 가족들이 왔다 싶으면 사망상태 직전 의사가 가족에게 연락했을 경우이다) 그분은 covid-19으로 인한 심장, 신장, 뇌의 손상이 커서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지내는 형편이었으나 약 한 달 간의 입원동안 가족의 사랑의 힘이었는지 도움을 받으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되어 지난 주간에 집으로 퇴원을 했다.

나는 그분을 볼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 (아마도 동양인이라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다), 또 남편의 건강함을 감사하는 기도였다.

이것은 나의 한 버릇인 것 같다. 환자의 나이를 보며 나와 나의 가족들과 대비를 한다. 그러면서 환자에 대한 empathy가 주입된다고 할까? 남편의 나이 또래를 보며, 나의 나이 또래, 어머니 또래, 아들의 또래를 보며 스며드는 감정들로 인해 그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며 covid-19양성환자 몇 명, 병원입원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정도만 알고 있다. 양성환자 숫자에서 사망자 수를 뺀 나머지 수는 모두 완치되었을까? 그중 완치자는 몇 %나 될까? 나머지는 이곳 저곳 신체 기관 손상으로 평생 고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것을 우린 잊고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동안 긴장 속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간구하는 시간이었고, 한 구절의 성경말씀을 붙들고 용감히 지내온 시간들이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이사야 43: 1-2)”

작성자: 김한나 장로

고 이숙재
권사님
송별예배
2020. 7.30

(소천 2020. 4. 9)



최정환 & 한세진 집사
& 최지아
2020. 7. 30.